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2020아트페스타인제주

작가도 살고 원도심도 사는 지속성 필요

산지전 일대 실내외 전시 열흘간 '지붕없는 미술관' 114명 출품 기회 증가 반면 작품지원금 규모는 적어져 공적자금 투입 의미 살려야



제주 현지에서 대풍에 부러진 자연물 등을 수집해 제작된 리혁중의 '브리즈 소사이어티'. 그 너머로 제주 오현을 모티브로 만든 송성진의 '떠도는 한평'이 물 위에 떠있다. 전신희기자

2억원 미만 예산으로 차린 미술 잔치였지만 외형은 풍성했다. 이 축제에 참여한 시각예술인은 114명에 이르고 시민 프로젝트 인원까지 합치면 514명이었다. 산지전갤러리에는 코로나19 상황에 견뎌 평상시보다 5배 가량 많은 관람객이 찾을 때도 있었다. 주최 측이 집계한 10일 동안의 방문객은 3000여 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전시만 치를 예정이었던 실내 전시장까지 개방해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갈증을 풀어줬다. 지난달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2020아트페스타인제주'다.

▶관객 호응에 일부 작품은 연말까지 존치키로=제주시가 주최한 이 축제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도시재생과 미술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산지전갤러리, 동문교-산지교 구간 산지전 수상과 수변, 유휴시설인 옛 하나새마을금고 등 산지전 일대를 열흘 동안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1~2층을 전시장으로 꾸며 문을 닫은 이래 처음으로 대안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인터랙티브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출품작이나 오늘날

제주가 처한 현안을 새로운 재료나 내용으로 풀어내려는 작업도 눈에 띄었다.

제주 작가를 중심으로 100명 넘는 시각예술인들에게 출품 기회가 주어 진 반면 '작품지원금' 규모는 그만큼 낮아졌다. 주최 측이 공개한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이다. 작품 수에 비해 실내 전시장 규모가 협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으론 작품 구매 의사를 밝힌 관람객들도 있었다. 전시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관람객 반응을 고려해 제주 송창훈 작가의 야외 설치작품 '바람 나무'는 연말까지 존치하기로 했다.

▶작품지원금 현실화로 참여 작가 조형을 제작 제안=회화, 조각, 판화, 영상미디어, 입체·설치미술, 사진, 공예, 조형·회화기법 등 여러 빛깔의 작품이 산지전 일대에 펼쳐진 이 행사는 '아트페스타'란 이름만 처음 달았을 뿐 지자체에서 직접 주최하는

미술축제로는 다섯 번째였다. 제주시 이도1동이 4회에 걸쳐 개최했던 제주국제아트페어&페스티벌의 배턴을 받은 행사이기 때문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의 미술축제 5회까지 이어온 만큼 지속 가능한 미술 축제의 방향을 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산지전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에 아트페스타를 통해 제작된 설치미술, 조각 작품 등을 매년 일정하게 남겨두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 조형물 설치 계획을 세운다면 원도심을 새로운 미술 명소로 띄울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경우 작품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평면을 포함 매년 장르를 바꿔 집중적으로 해당 분야 작가를 선정하는 방안이 있다. 내년 아트페스타를 앞두고 제주시는 현재 사업비 3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전신희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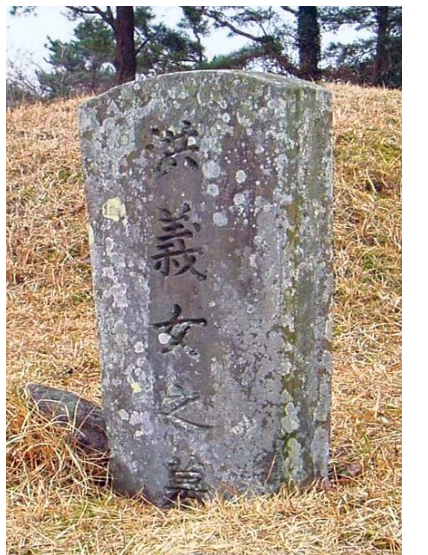


홍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삶을 내던진 항거... 2~3대 걸친 제주 유배

(10) 제주의 유배문화(상) 김정·송시열·임정하 등 정적 탄핵에 사사와 추국 소현세자 세 아들과 손자 조정철 집안 3대 귀양살이 신임은 84세 최고령 유배

송시열(1607~1689)은 83세의 고령으로 제주에 유배되었다. 말 손자를 데려온 그는 제주 성안 산지골 윤계득의 집에 100여 일을 지냈을 뿐이다. 유배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1694년 사후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자 제주 유생 김성우가 상소하여 당시 네 선현을 모신던 굴림서원에 송시열이 배향됐다.



유배인 조정철이 훗날 제주목사로 부임해 세운 '홍의녀지묘(洪義女之墓)' 비석.

제주도를 유배의 섬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었다. 제주에 탐라총관부를 두고 직속령으로 삼은 원나라는 다른 나라의 왕족이나 세력을 가진 대신 등 국내에 두기 곤란한 인물들을 제주도로 유배시켰다. 1317년 위왕 아목가 처음이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배지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이후의 일이다. 조선 건국 후 제주에는 조선 개국에 반대하거나 피해를 입었던 많은 고려 유신들이 흘러 들어왔다. 이들이 그대로 제주에 머물러 살며 터를 잡고 오늘날 제주의 입도조(入島祖)가 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의 유배인은 3대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1911년 이승훈의 제주 유배까지 500여 년간 200여 명의 주요 인물들이 제주에 들어왔다. 유배인들의 인생 역정을 '상처 1' (사사와 추국), '상처 2' (2~3대 유배인), '형세의 역전'이라는 표제 아래 그 실상을 전하려 한다.

▶상처 1 (사사와 추국)=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개혁정치를 폄하한 김경(1486~1521)은 1519년 훈구세력의 반발로 기묘사화가 일어나 충청도 금산으로 유배되었다. 금산으로 가다가 노모를 문병한 것이 문제가 되어 1520년 서울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고는 다시 제주도로 옮겨 유배되었다. 제주 유배생활이 1년여 될 무렵, 재차 배소이탈 문제가 논의되었고 결국 제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유배생활 동안 집필한 '제주풍토록'은 16세기 전기 제주의 자세한 실정을 알려주는 역사지리서다.

임정하(1687~1730)는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1727년 평안도 순안에서 제주 대정현으로 옮겨 위리안치 되었다. 2년 후 역모의 죄명으로 다시 서울로 불려가 국문을 받았는데, 끝까지 왕의 각성을 촉구하며 항거하다 옥사했다. 임정하는 유배 생활 중 제주목사로 지내며 무명세 폐지 등에 나섰던 임흥망의 손자라 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상처 2(2~3대 유배인)=1646년 인조는 소현세자빈이 역모를 꾸며다하여 사사시키고, 이듬해 자신의 손자인 소현세자의 아들 3명을 제주에 유배시켰다. 이때 장남 석철은 12세, 석린은 8세, 막내인 석견은 4세였다. 유배 1년 뒤 석철이 풍도병으로 죽고, 두 달 뒤 석린마저 병사한다. 막내 석견은 강화·교동 등지로 옮겨졌다가 1656년 10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1665년 20대의 나이로 병사했다. 석견(경안군)의 두 아들 이흔(임창군)과 이엽(임성군)도 훗날 부친이 왔던 제주에 유배되었다.

신명규(1618~1688)는 1673년 능역 관리 소홀로 탄핵돼 대정현 연례촌(지금의 예래동)으로 유배되었다. 귀양살이를 하며 정의현 출신 오정진 등 제자들을 길러냈다. 아들 신임(1639~1725)은 1722년 84세의 나이로 대정현 감산리에 위리안치 되었다. 조선시대 제주 유배인으로는 최고령에 해당한다.

숙질간인 조관빈(1691~1757)과 조영순(1725~1775)은 각각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조영순의 아들 조정철(1751~1831)은 역모사건에 연루돼 1777년 9월 11일 제주도로

유배된다. 부친상을 만나 상복을 입은 채 끌려왔다. 제주목사로 부임한 김시구는 조정철의 적소에 출입하던 젊은 남자 홍윤애를 붙잡아 고문을 가하며 조정철의 죄목을 캐내려 하였으나 별무 소득이었다. 김시구 목사는 1781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홍랑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했지만 소문은 삼시에 퍼졌고 급기야는 조정에까지 밀게되었다. 김시구 목사는 파직되고 조정철은 제조사를 받은 후 정의현으로 이배된다. 조정철은 그 후 추자도로 이배되었다가 1803년 8월 29년이란 기나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방면되었다. 8년 후인 1811년 6월 그는 제주에 목사가 되어 부임했고 도임하자마자 제주성 남쪽 홍랑의 무덤부터 찾았다. 조정철은 이 무덤을 깨끗이 정화하고 '홍의녀지묘(洪義女之墓)'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 이면에는 홍랑에게 바치는 애절한 시를 새겨 놓았으며 그 끝에는 '제주목사점전라도방어사 조정철'이라고 적어 그가 세운 사실을 세상에 밝혀 놓았다. 홍랑의 묘소는 1940년 예월읍 유수암리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며, 신위는 1997년 경상북도 함창에 있는 양주조씨 사당 함원재에 조정철과 함께 모셔 있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가 쏠리

강은희의 '소소한 일상...' 전

강은희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이달 5일까지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엔 익숙한 제주 풍광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 유화, 수채화 작품들이 나왔다. '올레길' 연작, '사계리의 봄', '지미봉에서', '대수산 봉에서', '저지리에서', '인상-행원리', '하도리포구', '인상-범섬' 등 제주 구석구석을 밟으며 만난 기억들이 화폭에 담겼다.

오만철 도자회화 초대전

제주시 노형동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가 이달 8일까지 오만철 도자회화 초대전을 연다.

이 전시엔 홍익대 동양화과, 단국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했고 수묵과 도자기를 넘나들며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오만철 작가의 '반추-달항아리' 연작이 나왔다. 고요한 자연이 내려앉은 백자도판에 1330℃ 환원소성을 거친 뜨거운 불의 작품들이다. 문의 747-1500.

공예와 아르브뤼의 만남

장예미술교육과 예술융합교육을 기획·운영해온 서지은·신상화·추현미 작가가 '공예가 아르브뤼와 만났을 때'란 이름으로 온라인 3인전을 연다.

섬유공예, 목칠·한지공예, 금속·라탄공예를 각각 전공한 3인의 작가는 장예미술교육을 통해 아르브뤼가 지닌 원초적이고 진솔한 표현에 주목하게 됐다.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예술융합창작소 제주나비 블로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축
CONGRATULATIONS

수 상



강 상 응
제주김녕풍력발전(주) 대표이사
(주)웅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풍력발전(주) 임직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임 용



김 준 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漁 林 會
(海汀 安瑛化 교수님을 사랑하는 모임)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유 재 호
(분회 초대회장)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 축구후원회
회장 이 동 화 외 회원일동